영어 절대평가 첫 모평…EBS 연계 교재 중요

〈모의평가〉

고3 교사가 말하는 수능 대비법

국어 긴 지문, 문단별 주제 찾기
영어, 글 전개방식 써놓는 습관
수학, 모평·수능 기출문제 풀이

올 수능 대비 첫 모의평가가 다음 달 1일 치러진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모의평가가 1일 실시된다. 고등학교 1~2학년(광주 3만5473명·전남 3만1936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도 동시에 치러진다.

광주에서는 62개 학교(1만8784명)와 10개 학원(1590명)에서 모의평가를 치르고 전남에서는 102개 학교 3학년생과 졸업생 등 1만6510명이 응시한다.

이번 평가는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해 본 수능의 출제방향·난도를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험이라는 게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주요 과목별 대비법, 학습법, 활용법 등을 들어봤다.

●국어, 긴 지문 대비해야

신희돈 교사

전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서는 한 페이지 전체를 채우고도 다음 장 절반 가량을 지문으로 채운 문제가 적지 않게 출제돼 수험생들을 당혹케했다. 과학 지문과 여러 분야를 섞어 출제한 유형도 선보였다.

신희돈 광덕고 교사는 이같은 점을 감안, 요령으로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는 실력을 쌓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독서의 경우 다양한 지문으로 꾸준히 독해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심화제와 주제를 정리하며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찾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했다. 인문·예술 제재는 관점과 견해, 사회 제재는 개념과 사례, 과학·기술 제재는 원리와 과정을 중심으로 읽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화법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대화·면접·발표·강연·연설·토의·토론·협상의 7가지 담화 상황과 연계한 말하기 계획을 비롯, 말하기 효과, 듣기 전략 등과 관련된 개념·원리를 정리해둘 것을 권했다.

작문은 '계획~내용생성~내용조직~표현~고쳐쓰기'라는 틀에 맞춰 작문의 단계적 과정을 심층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문·안내문·논설문·건의문·광고문·요약문·보고서 등 글쓰기 원리 정리는 필수다.

문학은 갈래별 특성에 따른 작품의 심층적 이해에 초점을 맞춰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신 교사는 "운문은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표현상의 특징,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소설의 경우 사건의 전개 양상, 인물의 성격과 심리, 서술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특히 문학은 EBS 교재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재에 수록된 작품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게 신 교사 설명이다.

●영어, 절대평가인데…큰 코 다친다

주보은 교사

전년도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만큼 영어 영역이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다.

하지만 고난도 어휘, EBS 연계교재와의 간접 연계가 늘어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훨씬 높았다. 지난해 수능 영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139점으로 전년도보다 3점 올랐다.

주보은 풍암고 교사도 이같은 점을 감안, "절대평가 전환이 쉬운 영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EBS 간접연계가 늘어나면서 예전에 비해 고난도 어휘와 복잡한 구문도 많고 추상적인 지문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주 교사는 EBS교재에서 상당 비율이 연계 출제되는 점을 감안, 연계교재들(수능특강 영어영역 '영어, 영어독해연습, 영어듣기')을 중심으로 학습할 것을 주문했다. 연계교재 내 지문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핵심소재 및 주제문 찾기, 글의 전개방식 파악, 변형연계 예상' 등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학습법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해에 도움이 되는 '어휘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문맥을 통해 익히고 시차를 두고 반복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정확한 문장구조 분석'을 위해서 주어·동사를 정확히 찾는 연습을 비롯, 다양한 수식어구(형용사 구·절, 부사구·절) 형태를 분간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고난도 문항에 대비,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글의 전개방식(인과, 두괄식, 미괄식, 비교와 대조, 시간의 흐름 등)을 이해, 교재 여백에 기재해놓을 것을 권고한다. 또 독해 시 중요한 문장과 부연 설명하는 부분들의 강약을 조절하며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도 시간을 안배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학, 수능 포기하지 말아야

김성훈 교사

수학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전국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고등학생 절반 이상은 수학 과목을 포기한 '수포자'(수학포기한 사람)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수학 과목을 포기하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 폭은 그만큼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영어 절대평가 전환으로 인한 수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성훈 조선대 부속고 교사도 "자신감을 가져라"고 했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는 그 자신감을 높이는 비결이라는 게 김 교사 설명이다.

김 교사는 우선, EBS 연계율이 70%(21문항)이므로 EBS 수능특강을 풀어보면서 정답만 찾는 공부보다는 문제에 담긴 개념과 풀이과정,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려는 공부법을 익힐 것을 권했다.

"70%(21문항)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해야 고난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사 설명이다.

김 교사는 "최근 모의평가 추세는 21, 29, 30번 문항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평이한 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이 시행된 두 차례의 모의평가, 수능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김 교사가 조언하는 학습팁이다.

그는 고난도 문항(21, 29, 30번)도 여태껏 출제되는 단원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학 가형의 경우 미분·적분·평면운동·공간도형·평면벡터 문항에서, 나형에서는 수열·지수로그·미분·적분·통계 문항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6월 모의평가 이렇게 활용해야

장광재 교사

장광재 숭덕고 진로진학상담부장은 6월 모의평가의 중요성과 관련, "전국 수험생 대부분과 재수생들까지 응시해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점, 향후 수시모집 원서 작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등으로 소홀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 부장은 "정시모집 비율 축소로 수능 영향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모의평가 결과를 수시 전형의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모의평가 이후 목표 대학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고 미흡한 과목을 보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게 장 부장 조언이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본 수능의 출제방향·난도를 점칠 수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올해 영어영역 절대평가 전환을 앞두고 절대평가 유형의 영어 시험은 이번 모의평가가 처음이다. 그만큼 모의평가 난도는 향후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장 부장 설명이다.

/정리=김지을기자 dok2000@

문화로 아이들 웃음 찾아 주세요

광주일보·초록우산 '무연고 아동 돕기' 참가학교 모집

광주일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광주·전남지역 무연고 아동 돕기 프로젝트 '품다'에 참여할 참가학교를 모집한다.

'품다'는 부모로부터 버려져 연고가 없는 광주·전남지역 아이들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참여 학생들의 문화기획 능력·리더십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다.

참여 학생들은 스스로 활동계획을 수립해 단순한 이웃돕기 등 기존 활동에서 벗어나 나눔과 문화기획을 접목한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를 위한 문화기획자 등 전문가 멘토링과 SNS 활용, 동영상 제작 등 콘텐츠 제작·활용교육이 지원된다.

무연고 아동을 돕기 후원 독려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동영상·카드뉴스 등 자체 제작한 콘텐츠는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되며, 이렇게 마련된 후원금은 무연고 아동을 돕는 데 쓰인다. 우수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로, 참가신청 학교 중 5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061-274-0041.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등굣길 즐거우면 학교 폭력도 줄겠죠?"

석산고 '오 해피 데이' 행사

광주석산고는 최근 '즐거운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의 하나로 '오 해피 데이' 행사를 펼쳤다.

'오 해피데이'는 등굣길 학생들에게 학교 가는 즐거움을 줘 긍정적인 학교 이미지를 심어주는 한편, 학교폭력, 안전 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석산고는 학생회 등 주관으로 교사와 학생이 어울려 학교 락밴드 연주, 과자 나눠주기 게임, 설문조사 및 사랑의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윤탁 교장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복지 증진, 학습 분위기 제고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매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